

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金壽泰*

— 목 차 —

1. 머리말
2. 淸州金氏와 佛敎
3. 眞表系 法相宗과 淸州金氏
4. 太賢系 法相宗과 淸州金氏
5. 맺음말

1. 머리말

新羅 下代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王京人에 비하여 많은 출세의 제약을 받았던 小京人의 정치적 성장을 낳았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소경지역의 豪族勢力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소경지역 호족세력의 思想的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느낌이 있다.¹⁾ 그 경우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禪宗과의 관련성이 검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소경지역의 호족세력과 敎宗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淸州의 대표적 호족세력인 淸州金氏는 교종인 法相宗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청주김씨는 궁예 보다는 王建과의 관련 속에서 크게 성장한 호족세력이다.²⁾ 청주김씨는 신라 하대부터 법상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려전기에 들어와서는 3대에 걸쳐 법상종승려를 내는 등 특정 家門과 종파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속리산지역을

* 충남대학교 교수

1) 김해소경의 선종을 다룬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1978과 남원소경 출신인 현휘에 대한 金杜珍, 「玄暉와 坦文의 佛敎思想」, 『高柄翊紀念史學論叢(한국사편)』, 1985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2) 호족세력으로서 청주김씨의 활동에 대하여는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1988와 洪承基, 「弓裔王의 專制的 王權의 追求」, 『許善道紀念韓國史學論叢』, 1992의 연구가 크게 참고된다. 그러나 청주김씨의 사상적 동향에 대하여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중심으로 크게 활동한 眞表系 法相宗의 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청주김씨와 법상종과의 관계는 後三國時代의 법상종이 高麗前期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계승·발전되었는가의 문제를 알아보는데 커다란 단서를 준다. 현재 궁예의 미륵신앙이 眞表系 법상종과³⁾ 太賢系 법상종⁴⁾ 가운데에서 어느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아울러 고려 건국 이후 진표계와 태현계 법상종의 통합가능성이나,⁵⁾ 현종대 이후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법상종이 과연 진표계 법상종인지,⁶⁾ 또한 각각의 계통이 특정 세력과 관련을 맺으면서 대립을 벌인 과정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주김씨와 법상종의 관계는 진표계 법상종의 행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주김씨와 법상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주김씨의 사상적 경향을 알아보고, 이어 신라 하대 청주김씨가 진표계 법상종을 수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고려전기에 청주김씨가 태현계 법상종과 대립하게 되는 배경을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후삼국기·고려전기의 법상종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淸州金氏와 佛敎

청주의 대표적 호족이었던 청주김씨의 사상적 경향은 어떠하였을까. 청주김씨의 경우 儒敎에 대해서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은 광종 13년(963) 청주에 건립된 「龍頭寺 幢竿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용두사의 당간 건립은 청주김씨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청주김씨인 堂大等 金芮宗이 佛事に 의지하여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당간은, 도중에 그가 죽자 김예종의 從兄인 金希一이 그것을 이어 완성하였다.

용두사 당간기에는 청주지방에 學院이 있어 왔음을 보여준다. 學院卿이나 學院郎中等 학

3) 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1986와 趙仁成, 『泰封의 弓裔政權研究』, 서강대박사학위논문, 1990 및 「彌勒信仰과 新羅社會-眞表의 미륵신앙과 신라말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82, 1996 ; 조인성의, 『傳統社會에서의 宗教와 叛亂』, 1997가 있다.

4) 金杜珍, 「高麗初 法相宗과 그 思想」, 『韓沽勅紀念史學論叢』, 1981 ; 『均如華嚴思想研究』, 1981 및 「弓裔의 彌勒世界」, 『韓國史市民講座』 10, 1992.

5) 金南允은 현화사창건과 함께 통합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韓國史論』 28, 1992 및 「高麗前期의 法相宗과 海麟」 ; 김남윤외, 『江原佛敎史研究』, 1996).

6) 김두진은 진표계 법상종으로 언급하고 있다(「고려초 법상종과 그 사상」 및 「궁예의 미륵세계」).

원관련 직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학원은 지방호족세력에 의하여 자치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운영되었다.⁷⁾ 따라서 청주김씨가 중심이 되어 이 학원을 움직였으리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원에서 무엇을 교육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일찍부터 소경지식인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儒敎가 그 중심이 되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점은 金言規의 활동에서 엿볼 수 있다. 918년 6월 왕건이 왕위에 오른 뒤 단행한 인사에서 김언규는 白書省의 차관인 卿에 임명되고 있다.⁸⁾ 이 김언규는 바로 다음달인 7월에 나오는 在京 청주김씨인 金言規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왕건의 집권에 宣力扶衛한 공을 세운 忠賢으로 언급되고 있다.⁹⁾ 백서성의 기능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백서성의 명칭과 관련시켜 이해할 때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인물이 이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김언규는 왕건의 측근으로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면 청주김씨는 유교에 대해 상당한 학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주김씨의 경우 유교 보다 오히려 佛敎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혜종 원년(944) 忠州 淨土寺에 만들어진 法鏡大師碑의 陰記를 보면 玄暉의 단월로서 淸州人 釋希 侍郎이 언급되고 있다. 이 석희는 이후 용두사 당간의 제작에 大等으로서 참여한 청주김씨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주김씨가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김씨가 관련된 불교종파는 선종 보다는 오히려 교종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현휘의 경우 선종승려이다.¹⁰⁾ 그러나 용두사는 선종사찰이기 보다는 교종사찰, 즉 법상종사찰로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¹¹⁾ 그런데 청주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위치를 볼 때 용두사는 이 지역의 중심사찰이었던 것 같다.¹²⁾ 뿐만 아니라 청주김씨가 당간건립을 위해 지방민과 함께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용두사가 청주김씨의 사상적 기반이 된 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청주김씨와 법상종파의 밀접한 관련은 金勤謙家門의 경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김근겸은 김언규와 함께 활동한 親王建勢力으로 중앙에서 활약을 한 청주김씨이다.¹³⁾ 김근겸가문과 법상종파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7)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 『韓國史研究』 7, 1972.

8) 『고려사』 1, 태조 원년.

9) 『고려사』 92, 王順式傳 附 堅金傳.

10) 현휘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두진, 「현휘와 탄문의 불교사상」이 참고된다.

11) 토니노 푸지오니, 「高麗前期 法相宗教團의 推移」, 『高麗時代 法相宗教團의 推移』, 서울 대학사학위논문, 1996, p.25.

12) 김주성, 앞의 글, pp.174-175.

13) 註 9를 참고할 것.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표가 금강산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그 생애를 끝마친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진표의 사후 진표계 법상종은 俗離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것은 그의 嫡統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A-1) 법을 얻은 우두머리는 永深, 寶宗, 信芳, 體珍, 珍海, 眞善, 釋忠 등인데, 모두 山門의 조사가 되었다. 영심은 眞表의 簡子를 갖고 俗離山에 머무르며 嫡統을 이은 제자가 되었다. 壇을 만드는 법은 占察의 六輪과는 조금 다르지만 수행하는 법은 山中에 전하는 바의 本規와 같다.(『삼국유사』 4, 義解 眞表傳簡)

2) 이 때 속리산의 大德 永深이 대덕 融宗, 佛陀 등과 더불어 함께 律師가 있는 곳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불원천리 와서 戒法을 구하니 법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율사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땅에 떨어지면서 용맹스럽게 참회하였다. 율사는 이에 傳敎하고 灌頂을 시키고 드디어 袈裟와 鉢과 『供養次第秘法』 1권과 『日察善惡業報(經)』 2권과 189개의 簡子를 주었다. 또 彌勒眞性 제 9간자와 제 8간자를 주면서 誠하여 말하기를 “제 9간자는 法爾이고 제 8간자는 新熏成佛種子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부촉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속리산으로 돌아가거라. 산에 吉祥草가 난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곳에 精舍를 창립하고 이 敎法에 의거하여 널리 人天을 제도하고 후세에 유포시켜라”고 하였다. 영심 등은 가르침을 받들어 바로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이름을 길상이라고 하였다. 영심은 이 곳에서 처음 占察法會를 열었다.(『삼국유사』 4, 의해 關東楓岳 鉢淵藪石記)

A-1)을 보면 진표의 제자들이 여럿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산문의 조사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은 永深인데, 그는 진표의 적통을 잇는 제자가 되었다. 영심 이외의 다른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표의 제자 가운데에서 그의 위치를 알 수 있다.

A-2)에 의하면 영심은 본래 속리산에서 활동한 승려로 생각된다. 영심이 진표에게 와서 법을 구하자, 진표는 그에게 전교하고 관정을 시키고 있다. 또한 가사와 밭, 『공양차제비법』 1권과 『일찰선악업보(경)』 2권 및 189개의 간자를 영심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영심이 진표의 적통을 잇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진표는 영심에게 다시 속리산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영심이 세울 사찰의 위치까지를 정해주고 있다. 이에 영심은 속리산에 길상사를 세우게 되며,¹⁸⁾ 그 곳에서 점찰법회를 처음으로 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진표계 법상종이 이제 속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자리잡게 됨을 말해준다.

속리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자리잡은 진표의 법상종은 곧 인접한 지역인 청주에

18) 俗離寺로도 불린 이 사찰은 현재의 法住寺로 생각된다.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는 바로 속리산 길상사가 위치한 보은과 인접한 지역으로, 충청도지역에서 신라지역으로 진출할 때 보은과 함께 중요한 교통로이기도 하다. 또한 진표의 미륵신앙이 가지고 있는 반신라적인 경향은¹⁹⁾ 청주지역의 반신라적인 경향과 일치한다.²⁰⁾ 때문에 진표계 법상종은 청주지역의 불만농민이나²¹⁾ 중류층 이하의 지식인이나 중소호족들에게는²²⁾ 크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청주김씨 역시 진표계 법상종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속리산을 중심으로 진표계 법상종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청주지역의 사찰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진표와 관련시켜서 언급되는 사찰은 두 곳이 있다.²³⁾ 청주시 용암동에 자리잡고 있는 菩薩寺와 청원군 남이면에 소재하고 있는 安心寺이다. 보살사는 혜공왕 14년(778)에 진표율사의 제자인 용종대사가 중창하였다고 한다. 이 용종은 바로 영심과 함께 진표를 찾아가 법상종을 배워온 인물이다. 그리고 안심사는 신라 혜공왕 11년(775)에 진표가 절을 지어 그의 제자 수십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에서 안심사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안심사는 고려 태조 원년(918)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증통국사에 의하여 세 번째 중창되었는데, 그는 같은 시기에 속리산 법주사의 중창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신라 하대 진표계 법상종이 속리산을 중심으로 청주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²⁴⁾

청주김씨와 관련되며, 청주지방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법상종은 이 지역이 904년 이후 궁예의 중요한 세력기반이 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청주지역이 궁예의 주된 세력기반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²⁵⁾ 그러나 궁예가 청주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 이유는 현재 잘 설명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²⁶⁾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상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19) 이기백, 앞의 글, p.272.

20) 청주지역의 반신라적 경향은 김헌창란에 이 지역의 지방세력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뚜렷해졌을 것이다.

21) 진표계 법상종이 농민층에게 매력적이었으리라는 사실은 이기백, 앞의 글, p.272 및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pp.40-45의 연구를 참고하라.

22) 법상종의 수용계층에 대해서는 김두진, 『고려초 법상종과 그 사상』, pp.121- 122 및 pp.127 -132를 참고하라.

23) 車勇杰 외, 『佛敎遺蹟』, 『淸州市歷史遺蹟』, 1993, p. 171 및 p.188.

24) 한편 옛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김헌창의 주된 거점의 하나가 보은의 삼년산성과 속리산지역이었다는 사실은(『삼국사기』 10, 憲德王 14년) 역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진표계 법상종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25) 김주성과 홍승기의 앞의 글 및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地方勢力』, 『湖西文化研究』 11, 1993가 크게 참고된다.

26) 신호철의 경우 청주 또는 인근지역이 궁예의 外家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다(위의 글, p.79).

된다. 궁예의 경우 그는 본래 승려로서, 불교전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주된 사상적 기반의 하나인 미륵신앙의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견훤이 진표가 출가한 금산사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그런데 청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진표계 범상종은 바로 그 적통을 이은 것이었다. 따라서 청주지역에서 크게 유행한 진표계 범상종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궁예는 그것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며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제 옛 백제지역에서 출발한 진표계 범상종은 각각의 지지세력을 선택하게 되었다. 견훤은 금산사를,²⁷⁾ 궁예는 진표의 적통을 이은 청주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궁예의 미륵신앙이 태현계 범상종과 관련되는 것인지,²⁸⁾ 아니면 진표계와 관련되는 것인지에²⁹⁾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거기에는 궁예가 꼭 진표의 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인의 증용과 함께 궁예가 진표계 범상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청주가 궁예의 주된 세력기반이 됨으로써 궁예는 진표의 적통을 이은 진표계 범상종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궁예가 진표계 범상종을 언제, 어떠한 계기를 거쳐서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궁예는 이미 世達寺 시절 진표계 범상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溟洲에 출입하면서 진표의 미륵신앙에 접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³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태현계 범상종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³¹⁾ 또한 이 경우 명주만을 강조하며, 속리산을 중심으로 유행한 진표계 범상종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진표의 사후 금산사지역, 속리산 지역, 명주지역 등으로 크게 나뉘어졌을 진표계 범상종의 상호관계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파악된 것이 없다. 그러나 속리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상종의 동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³²⁾

그러나 궁예가 911년 이후 神政的 專制主義를 추구하면서 진표계 범상종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변화된 것이 아닐까 한다.

27) 견훤과 진표의 미륵신앙과의 관계는 이기백, 앞의 글, p.274 및 김두진, 앞의 글, p.119과 許興植, 「葛陽寺 惠 居國師碑」, 『高麗佛敎史研究』, 1986, pp.593-594 등이 참고된다.

28) 김두진, 앞의 글, pp. 117-118.

29) 이기백이 진표의 활동지역과 관련하여 이것을 언급한 이후(앞의 글, p.274), 조인성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弓裔의 出身과 社會的 進出」, 『태봉의 궁예정권연구』, pp.18-27 및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p.48).

30) 조인성, 「궁예의 출신과 사회적 진출」, pp.18-22.

31) 김두진, 「궁예의 미륵세계」, pp.27-29

32) 조인성의 경우 앞의 글, p. 24에서는 속리산지역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후 명주를 주목하고 있다.

B- 1) 朱梁 乾化 元年(911) 辛未에는 聖冊 연호를 고쳐 水德萬歲 元年이라 하고, 국호를 고쳐 泰封이라 하였다.(중략) 善宗이 彌勒佛을 자칭하며 머리에 金幘을 쓰고 몸에 方袍를 입고, 長子를 靑光菩薩, 季子를 神光菩薩이라 하였다. 외출할 때에는 항상 백마를 타고 채색 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하고, 童男童女로 日傘과 香花를 받들게 하여 앞에서 인도하고, 또 比丘 200여명으로 梵唄를 부르면서 뒤를 따르게 하였다. 또 經文 20여권을 자술하였는데, 그 말이 요망스럽고 모두 不經한 것이었다. 때로는 정좌하여 講說하였는데, 僧 釋聰이 이르기를 “모두 邪說, 怪談으로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하니, 선종이 듣고 노하여 철퇴로 때려 죽였다.(『삼국사기』 50, 궁예전)

2) 또 살펴보면 本朝의 문인 金寬毅가 편찬한 『王代宗錄』 2권에 말하기를 新羅末 신라의 大德 釋忠이 太祖에게 眞表律師의 袈裟 한벌과 戒簡子 189매를 바쳤다고 하는데, 지금 桐華寺에 전하는 간자와 다른 것이었는지 같은 것이었는지는 미상이다.(『삼국유사』 4, 의혜 心地 繼祖)

미륵불을 자처한 궁예는 경전을 저술하고 그것을 강설하며, 그의 행차에 승려들로 하여금 범패를 부르며 따르게 하였다. 이 때 그는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彌勒宗이라고 불려도 좋을 새로운 불교종파를 만들려고 하였다.³³⁾

이러한 사실은 궁예와 밀접히 관련되었던 미륵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궁예의 사상적 기반이 된 미륵신앙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단순히 진표계 범상종 자체내의 분열³⁴⁾ 혹은 진표계와 태현계 범상종의 대립으로서만³⁵⁾ 지적되었을 뿐이다.³⁶⁾ 따라서 궁예의 미륵신앙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륵신앙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지 미륵신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미륵신앙은 그것과 결합한 선종, 교종 등 다른 종파와의 결합과 함께 새로운 양상을 낳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더욱이 이러한 가운데 미륵신앙은 지역과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신정적 전제주의를 추구하였던 궁예가 어느 한 특정사상만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화엄사상에 더하여 미륵신앙을 강조하였으며, 선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³⁷⁾ 또한 이 때 태현계 범상종과도 새롭게 결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33) 조인성, 「弓裔政權의 神政的 專制主義와 그 限界」, 『태봉의 궁예정권연구』, p.97.

34) 조인성, 위의 글, p.109 및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pp.51-52.

35) 김두진, 「궁예의 미륵세계」, p.29에서는 종파나 교단의 대립으로 이해하고 있다.

36) 이밖에 허홍식은 금산사와 미륵사를 중심으로 후백제 미륵사상의 분열을 언급하고 있다(앞의 글, p.592).

37) 조인성, 「궁예정권의 신정적 전제주의와 그 한계」, pp.93-102. 김두진은 세달사의 경우

수 없다. 따라서 궁예의 새로운 미륵신앙은 기존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포함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궁예와 함께 그것을 주도한 인물은 江陵金氏인 許越이나 宗佩 등과 같은 승려들로, 지역적으로는 명주 지역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³⁸⁾

이러한 궁예의 태도변화는 불교계의 커다란 반발을 일으켰던 것 같다. B-1)에 보이듯 궁예의 새로운 미륵신앙은 요망스럽고 불경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궁예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보다 광범위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살필 수 있다.³⁹⁾ 특히 청주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진표계 범상종의 반발이 구체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궁예의 새로운 미륵신앙에 대한 반발은 B-1)에서 석총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석총의 반발은 신정적 전제주의가 추구되는 911년에 찾아진다. 이 석총은 B-2)에 보이는 석총과 동일인물이 아닌가 한다.⁴⁰⁾ 그렇다면 석총은 진표로부터, 영심에게 이어졌던 진표계 범상종의 적통을 이은 인물로 생각된다.⁴¹⁾ 이 때 그는 청주김씨세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총은 궁예의 미륵신앙을 모두 사설, 괴담이라고 하여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것은 신정적 전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어 나갔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궁예의 신정적 전제주의를 비판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진표계 범상종과는 크게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적어도 경전의 저술에 의미를 주는 등의 사실은⁴²⁾ 진표계에서

화엄종사찰일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다(앞의 글, p.28).

38) 조인성, 위의 글, pp.102-103 및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pp.48-50. 조인성이 명주지역을 강조한 것은 진표의 활동과 관련해서이다. 신라왕실의 진표에 대한 회유와 함께 진표가 금강산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생애를 마친 것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이기백, 앞의 글, p.275), 조인성은 “진표가 금강산일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주일대에서 포교하였으며, 그것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듯하다. 진표가 입적한 후 그의 제자들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듯하다”(「미륵신앙과 신라사회」, p.49)고 보았다.

따라서 진표의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시기별, 지역별 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통의 계승과정을 고려해본다면 속리산지역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세달사의 경우 속리산지역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사실도(조인성, 「궁예의 출신과 사회적 진출」, p.24)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주지역의 범상종은 신라말에 들어와서 속리산중심으로 진표계 범상종의 범맥이 이어지면서 세력확대와정속에서 함께 새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명주지역의 진표계 범상종의 움직임은 후술하듯이 고려전기에 명주출신인 義光의 활동이나 鉢淵藪 石記의 제작과 함께 주목받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9) 917년에 있는 선종승려 迥微의 죽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

40) 신호철, 「弓裔의 政治的 性格」, 『韓國學報』 29, 1982, p.50.

41)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pp.41-45. 흔히들 심지가 적통을 잇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김두진, 「고려초 범상종과 그 사상」, p.115 및 김남윤, 『신라 범상종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5, pp.143-145) 따르지 않는다.

42) 김두진은 태현계 입장에서 저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궁예의 미륵세계」, p.29).

계율을 강조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제주의를 추구하는 궁예의 새로운 미륵신앙은 진표의 미륵신앙처럼 그의 초기 세력기반이었던 불만 농민층의 이익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석충의 비판은 그의 죽음에 보이듯 궁예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김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석충의 활동과 이러한 반발은 청주호족세력의 분열과 맞물리고 있어 주목된다.⁴³⁾ 이것은 913년에 일어난 阿志泰 사건에서 알 수 있다.

清州人 阿志泰는 아침하고 간사하더니 궁예가 참소함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같은 고을 사람 筮全, 辛力, 寬舒 등을 참소하매 有司는 이를 推鞠하매 수년 동안 판결하지 못한 채 있었다. 그러나 태조가 곧 진위를 가려내어 아지태로 하여금 죄를 승복하게 하자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속시원하게 여겼다. 이로 말미암아 轅門將校, 宗室勳賢, 智計儒雅의 무리가 바람에 쓸리고 그림자처럼 따르지 아니함이 없었다.(『高麗史』 1, 태조 원년)

913년 清州人 아지태는 궁예에게 기대어 같은 청주인이었던 입전 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 때 입전 등의 세력은 청주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지태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곤경에 빠져 있었던 입전 등은 왕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 청주출신이라고 하여 모두 궁예를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석충의 궁예비판과 아지태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또한 청주인과 관련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청주김씨와 관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왕건의 지지세력이 되었다. B-2)에 보이듯 석충은 진표의 간자를 왕건에게 주고 있다.⁴⁴⁾ 이것은 이제 진표계 범상종이 궁예가 아니라 왕건과 새롭게 결합됨을 의미한다.⁴⁵⁾ 청주김씨 역시 친왕건세력이 되었다. 이 밖에 아지태사건 이후 왕건에 가담한 智計儒雅한 무리들도 지식인들로서 유교에 대해 상당한 소양을 가졌던 청주김씨와 일정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이들은 왕건의 집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청주김씨는 왕건의 집권에 힘을 다한 충현으로 언급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청주김씨는 왕건과의 새로운 관련속에서 청주지역에서 서서히 세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⁴⁶⁾ 청주김씨 역시 처음에는 청주를 대표하는 강력한 호족세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

43) 흥승기에 의하면 강온파의 분열로 이해되고 있다(앞의 글을 참고할 것).

44) 석충이 왕건에게 간자를 바쳤던 시기는 왕건이 정권을 잡기 전의 일이었다(조인성, 앞의 글, p.51).

45) 이것은 또한 진표계 범상종의 적통을 잇는 것을 의미한다(조인성, 앞의 글, pp.51-52).

46) 김주성, 앞의 글, pp.171 -176

각된다. 청주지역에서 궁예와 관련되며, 신정적 전체주의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모두 제거된 이후 청주김씨는 청주의 대표적인 호족세력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을 것이다.

4. 太賢系 法相宗과 淸州金氏

왕건과의 결합 속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된 청주김씨는 혜종, 정종대에 들어오면 왕실 외척으로 큰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⁴⁷⁾ 그것은 김근겸가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김근겸의 아들인 忠良은 문하시중의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청주김씨는 정치적으로 일정기간 상당한 세력을 떨쳤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주김씨의 경우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곧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재경청주김씨인 김근겸가문은 懷玉 이후 동정직이나 검교직을 차지하는 등 관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려전기 청주김씨는 중앙에서 中小貴族으로 전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⁸⁾ 그러나 재지청주김씨의 경우에는 광종대 용두사의 당간건립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토착세력으로서의 중심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청주김씨는 김근겸가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상적인 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주김씨는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진표계 법상종의 확산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지 않았을까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왕건이 후삼국통일 후 법상종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지만,⁴⁹⁾ 최근에 들어와서 태조대 법상종의 동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실들이 주목되고 있다.⁵⁰⁾ 그렇지만 그것이 법상종의 두 계통 가운데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태조가 즉위와 함께 忠州劉氏 소생의 아들인 證通國師를 보내어 속리산 범주사를 중창하였다는 사실은⁵¹⁾ 여전히 속리산 중심의 진표계 법상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²⁾ 이후 광종대에는 용두사의 당간건립이 청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종대에 들어와서 속리산 범주사에서 당간지주가 건립되고 있다.⁵³⁾ 이러한 가운데 청주김씨는 3대에 걸쳐 법상종 승려를 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47) 『고려사』 88, 후비.

48) 김주성, 앞의 글, pp.181-182.

49) 김두진은 왕건이 법상종수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두진, 앞의 글, p.131).

50) 푸시오니, 「고려전기 법상종교단의 추이」, p.17 및 김남윤, 「고려전기의 법상종과 해린」, pp. 117-118.

51) 『朝鮮寺刹史料』 上, p.127.

52) 청주김씨와 충주유씨와의 관계는 나의 글,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 『忠淸文化研究』 1, 1989, p.20을 참고하라.

53) 「法住寺鐵器刻」에 의하면 목종 9년이다.

고려전기에 법상종이 크게 융성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목종대 이후 현종대에 들어와서였다. 그 배경으로 광종대 僧科制度의 실시나,⁵⁴⁾ 현종의 즉위배경⁵⁵⁾ 등이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현종대 이후 융성하게 된 법상종에 대해서는 몇가지 검토할 측면이 있다. 먼저, 이 때 신라시대 이래로의 두 계통이 통합되었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각각의 계통이 고려전기 어떠한 승려 및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고려전기에 있어서도 진표계 법상종과 태현계 법상종이 특정 가문과 결합하며 대립하는 양상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토되고 있듯이 고려전기 법상종의 동향 역시 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계통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⁵⁶⁾ 먼저 최초의 僧科 합격자인 鼎賢(972-1054) 계통을 들 수 있다. 정현은 법상종사찰인 安城 七長寺를 주된 근거지로 하며, 法鏡의 뒤를 이어 현화사의 2대 주지가 된 인물이다.⁵⁷⁾ 그런데 정현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진표계 법상종을 이은 인물로 생각된다. 그가 속리산에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곡식으로 바꾸어 방생식을 행하였다는 점에서⁵⁸⁾ 속리산 길상사와 관련된 인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戒行을 대단히 강조했다는 사실은⁵⁹⁾ 진표계 법상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현이 진표계 법상종과의 결합하게 된 것은 칠장사가 위치하고 있는 安城이 청주지역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표계 법상종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⁶⁰⁾

이러한 사실은 정현의 제자를 검토함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현의 법맥을 이은 사람은 정현의 수좌인 靈念이다. 영념은 김근검의 후손인 英念과 동일한 인물이다. 영념은 해린이나 소현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⁶¹⁾ 영념의 법맥은 이후 順眞에게, 그리고 德謙(1083-1150)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현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숙질간으로, 모두 청주김씨인 김근검가문의 후예이다.⁶²⁾ 그리고 이들은 청주지역과 진표계 법상종과의

54)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pp.114-118 ; 『신라법상종연구』, pp.147-150.

55)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洙勳紀念史學論叢』, 1981, pp.240-249.

56) 푸지오니의 경우 사찰을 중심으로 법천사와 칠장사계통으로 나누고 있다(앞의 글, p.49). 그런데 당시 칠장사 보다는 속리사가 오히려 중요하였으므로 오히려 속리사계로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린계와 정현계로 나누어 파악하는 일반적인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57) 최병현, 앞의 글, pp.249-251.

58) 이지관편, 「竹山 七長寺 慧炤國師塔碑文」, 『역대고승비문』 2, 1995, p.314.

59) 김두진, 앞의 글, pp.125-126.

60) 한편 칠장사에서 용두사 및 속리사와 마찬가지로 고려전기에 연이어서 모두 칠당간을 건립했다는 사실은 당시 진표계 법상종사찰의 활동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61) 최병현, 앞의 글, p.254.

62) 이들의 밀접한 관계는 덕검의 탄생과 관련된 꿈이야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원증승통

관계를 볼 때 진표계 법상종을 신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현 계통은 고려전기의 법상종에서 주류는 아니었다. 영념은 해린의 뒤를 이어 현화사 4대 주지가 되었지만 그가 머문 기간 동안 현화사교단은 크게 떨친 것 같지 않다고 한다. 순진의 경우에도 그는 肅宗 전후로 일찍 입적함으로써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⁶³⁾ 덕검만이 영념의 후신으로 자처하며 해린계 법상종세력이 몰락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고려 전기 법상종 계통에서 주류를 형성한 것은 현화사의 3대주지가 된 海麟(984-1070) 계통이었다.⁶⁴⁾ 해린은 原州 法泉寺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인물이었다. 해린의 등장과 함께 현화사가 중창되는 등 법상종은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 해린의 제자의 수가 1,300여명에 달하는 정도였다는 점은 그 세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해린계 법상종의 융성은 해린과 대문 벌귀족인 仁州李氏, 水州崔氏 가문과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인주이씨인 李資淵의 제 5자인 韶顯이 해린의 제자가 된 것이다.⁶⁵⁾ 해린 비문의 음기에 문도로 나오는 世梁은 이자의 동생이다. 인주이씨와 해린계통의 법상종과의 관계는 소현의 활동과 함께 더욱 긴밀해진다. 인종 4년(1126)의 이자겸란에 현화사의 승려 300명을 동원하여 가세하였던 義莊은 이자겸의 아들이다. 소현과 세량은 숙질간, 세량과 의장의 관계도 5촌 숙질이 된다. 이밖에 소현과는 외가쪽으로 숙질간인 窺도 있다. 따라서 해린의 뒤를 이은 소현대에 오면 해린계의 법상종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문도는 1,800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청주김씨가 중심이 된 정현계와는 달리 해린계 법상종은 인주 이씨가 중심이 되고 있어 크게 대비된다고 하겠다.

해린계 법상종은 정현계와는 달리 태현계 법상종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해린계 법상종을 진표계로 이해하고 있다.⁶⁶⁾ 그 결과 고려초에 태현계 법상종교단은 그 법맥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지만, 진표계 법상종교단은 인주이씨의 후원을 받으면서 현종 이후 크게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소현의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⁶⁷⁾ 소현이 진표가 출가한 金山寺를 중심으로 廣敎院을 설치하는 등 크게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보다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라시대 이래의 법상종의 법맥을 정리한 소현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자.

덕검묘지명」, p.306).

63) 최병현, 앞의 글, p.254.

64) 해린에 대해서는 최병현, 앞의 글, p.251-253과 김남윤, 「고려전기의 법상종과 해린」이 참고된다.

65) 인주이씨와 해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병현, 앞의 글, pp.251-252와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p.123을 참고하라.

66) 김두진, 「고려초 법상종과 그 사상」, p.115 및 「궁예의 미륵세계」, p.218.

67) 소현의 활동에 대하여는 최병현, 앞의 글, pp.255-258을 참고하라.

스님은 일찍이 금산사의 남쪽 60보쯤 되는 지점에 勝地를 골라 廣敎院을 창설하고, 유식종에 관한 경론을 刻彫하여 廣敎院에 진장하였다. 그리고 院中에 金堂 하나를 따로 두어 盧舍那佛과 현장, 규기 두 스님의 상을 (결락) 봉안하였다. (중략) 자세히 상고해보니 『大宋高僧傳』에 현장은 유식론을 개창한 시조이며, 규기는 이에 유식논문을 保守하여 述作한 宗祖라고 하였다. 현장이 만약 규기가 없었다면 어찌 그의 學을 祖述하여 확장할 수 있었겠는가? (중략) 과거 당나라 太宗 文皇帝가 신라왕의 요청으로 유가론 100권을 보내오으로써 그 때까지 應理圓實의 교학이 없었으나, 이 때부터 점점 이 땅에 왕성하였다. 그리하여 元曉법사가 앞에서 인도하였고, 太賢大統이 뒤를 따랐으며 燈과 등이 등불을 이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증흥하였다. (중략) 뛰어난 화가를 모집하여 석가여래의 탱화와 현장, 규기의 2師와 海東六祖의 영정을 모두 그려서 각각 그 절에 봉안하였다.(『金山寺 慧德王師 眞應塔碑文』⁶⁸⁾)

소현은 법상종법맥으로 중국의 玄奘, 窺基와 원효, 태현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海東 6조를 설정하고 있다. 소현의 이러한 이해는 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법상종계통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中國과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표계와 태현계 모두와 관련이 없는 중국측 승려인 현장과 규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정통과 유식학으로, 서명과 유식학인 신라출신의 승려인 원측에서 도증, 태현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⁶⁹⁾ 한편 그는 우리나라 법상종계통으로 원효와 태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태현이 원효를 이어 제 2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때 6조가 누구인지는 모두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표도 포함될 것으로 이해하며, 진표를 태현 다음의 3조로 설정하고 있다.⁷⁰⁾ 이것 역시 이전까지 원측, 도증, 태현계와 원광과 진표로 이어지는 계통으로 나뉘어져 온 것과는 다르다.⁷¹⁾ 그러므로 소현은 중국과의 관련속에서, 원효를 강조하면서 태현을 중심으로 법상종법맥을 새로이 정리하였다.⁷²⁾

소현이 해동 6조안에서 진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태현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가 진표계 보다는 태현계 법상종의 법맥을 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⁷³⁾ 해동 6조에 진

68) 『역대고승비문』, pp.49-53.

69) 김남윤은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pp.136-137에서 이것은 중국문화에 대한 숭모와 회고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단순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70) 김두진, 앞의 글, p.115 및 이지관, 「金溝. 金山寺 慧德王師眞應塔碑文」, 『역대고승비문』 3, p.53.

71)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 (하), 『歷史學報』63, 1974, pp.158-160.

72) 최병헌은 화엄종 등 다른 종파에 대한 법상종의 종파의식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앞의 글, p.256).

73) 진표계와의 관련을 강조하고 있는 김두진의 경우 소현의 실질적인 법상종조로 올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태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앞의 글, p.115). 따라서 김두진의 경우

표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다라든가 진표의 위치는 태현의 그것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려시대에 소현과 함께 신라시대의 법상종승려인 태현이 가장 강조되었다는 사실에서⁷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현의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經典刊行인데, 이것은 계행을 크게 강조했던 진표계 법상종을 잇는 정현계와는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소현이 단순히 금산사에 주석했기 때문에 진표의 범맥을 이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소현이 법상종범맥을 새롭게 정리한 것은 그가 기존의 법상종교단을 統合하려고 했던 점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법상종계통의 통합은 현종대 현화사의 건립과 관련시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일로 추측하고 있다.⁷⁵⁾ 그러나 법상종 계통의 통합은 소현에 의하여 이 무렵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광고원과 繕理宮의 설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광고원에서 법상종경전을 간행하였으며, 그것을 전국의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까지 두 계통으로 되어 있던 법상종계통을 교리적으로도 통합하려고 하였던 소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宣宗때 소현은 왕으로부터 선리궁을 설치하도록 허락받았는데, 그것은 전국의 법상종 사찰을 보다 잘 통어하기 위해서였다.⁷⁶⁾

소현이 태현계와 진표계 법상종의 두 계통을 통합하려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당시까지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던 정현계인 진표계 법상종 계통을 아우르려는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태현계 법상종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소현이 시도한 법상종통합은 태현계를 중심으로 진표계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소현은 진표계 법상종의 본거지였던 금산사를 선택하였으며, 그 곳을 중심으로 당시의 법상종교단에 새로운 변화를 줄려고 한 것이다.⁷⁷⁾

소현의 노력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소현의 문도로서 정현계 승려인 순진이 언급된다든지,⁷⁸⁾ 또한 청주인으로 용두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祐祥의 활

소현과 진표 및 태현과의 관련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4) 최병현, 앞의 글, p.256.

75) 두 흐름이 합해진 정확한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무렵으로 이해된다(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pp.112-113 및 pp.136-137과 「고려전기의 법상종과 해린」, p.146).

76) 김두진, 앞의 글, p.113 및 한기문, 「불교」, 『고려시대사강의』, 1997, p.519. 그러나 최병현과 마찬가지로(앞의 글, p.256) 선리궁을 繕理宮으로 잘못 읽고 있다.

77)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화엄종교단을 의식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최병현, 앞의 글, pp.255-256). 한편 진표계 법상종의 범맥이 속리사로 이어진 후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미륵신앙의 변화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78) 「금구 혜덕왕사진응답비문」, p. 67.

동에서 살필 수 있다.⁷⁹⁾ 그리고 窺가 속리사주지로서 금산사주지를 겸하게 되었다는 사실 들은⁸⁰⁾ 양 계통의 통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법상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시의 불교계 전반에 관련을 맺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인주이씨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현의 활동과 함께 정현계 법상종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예종대 王師 德淵이 國師의 법통을 계승할 사람으로 덕점을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⁸¹⁾ 이에 정현계 법상종은 해린계 법상종과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정현계 법상종의 반발은 영님의 화신으로 자처한 덕점의 활동에서 살필 수 있다.

인종초에 이르러 國戚인 이씨가 국권은 擅斷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의장 =筆者註)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 현화에 있으면서 국척이라는 권세를 믿고 위엄을 부리면서 여러 老師와 有德한 스님들을 門弟로 삼았으므로, 이에 따라 趨炎炙手하는 자가 날마다 찾아와서 門庭을 채웠다. 오직 덕점 스님만이 正色하고 꾸짖기를 “스승이 있는 곳에 도가 있는 것이어늘, 어찌 達士가 豪強權勢의 협박을 받아 도리어 그들의 兒子인 眷屬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씨의 아들이 매우 미워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중상코자 하였다. 마침 丙子年에 大內에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자 출가한 이씨의 아들도 僧徒를 거느리고 바야흐로 개경으로 올라와서 덕점을 강제로 自派로 포섭하려 하였으나 스님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문하 두 사람과 함께 삼각산 향림사로 가서 잠깐 우거하였다.(『원증승통 덕점묘지명』⁸²⁾)

덕점은 의장 등 인주이씨 출신이 주도하는 해린계 법상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반발하였던 것이다. 덕점의 이러한 반발을 단순히 현화사 노승의 반발로나⁸³⁾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다.⁸⁴⁾ 그것은 소현계의 활동과 함께 크게 위축된 정현계 법상종의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상종의 사상적 특징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본래 법상종은 대귀족의 사상적 기반은 아니었다. 중류층 이하의 지식인이나 중소귀족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따

79) 푸시오니, 앞의 글, p.49 및 p.55.

80) 『금구 혜덕왕사진응답비문』, p.63.

81) 『원증승통 덕점묘지명』, p.308.

82) 『역대고승비문』 3, pp.308-309.

83) 푸시오니, 『門閥貴族의 擡頭와 法相宗教團의 隆盛』, 『고려시대 법상종교단의 추이』 p.100. 최병헌, 앞의 글, p.255에서는 대립사실만이 지적되었을 뿐 그 자세한 이유는 검토되지 못하였다.

84) 해린계와 정현계의 교학상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김남윤은 해린계를 주류로 보고 있다(『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pp.137-138).

라서 인주이씨와 같은 대문벌귀족출신의 승려들이 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법상종은 왕권의 강화나 국가권력의 증대를 위해서 기능하였다.⁸⁵⁾ 이에 왕권은 대문벌귀족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중소귀족들과 결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주이씨와 밀접히 관련된 해린계법상종은 왕실 외척으로 대문벌귀족인 인주이씨의 전횡과 왕권의 약화를 낳았던 것이다.

더욱이 해린계가 강조한 태현계 법상종은 신라말 이래로 불만농민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던 진표계 법상종과는 그 사상적 기반이 달랐다. 인주이씨의 활동과 함께 고려사회는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법상종 뿐만 아니라 기존 불교교단을 새로이 통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중소귀족이었으며, 그것을 수용하는데 앞장섰던 청주김씨출신의 법상종 승려의 반발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진표계 법상종에서 특히 강조하는 계율적인 국가통치와 함께 왕권강화를 희망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데에 있어서 당시 피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청주김씨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 정현계 법상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어떠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새롭게 대두한 慶州金氏 가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김부식의 형인 玄漣 역시 법상종 승려였는데, 인주이씨계의 법상종에 대해서 반발하였다.⁸⁶⁾ 김부식 역시 이자겸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자겸세력을 반대하는 귀족세력의 상당한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⁸⁷⁾ 또한 華嚴宗 세력 등 인주이씨계 중심의 불교계의 통합에 반대하는 불교세력도 여기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정현계 법상종과 해린계 법상종의 대립은 이자겸란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정현계 법상종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덕점의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⁸⁸⁾ 인종은 덕점이 인주이씨인 國戚들과 야합하지 아니하였음을 가상히 여겨 三重大師의 법계를 주었다. 이후 덕점과 인종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는데, 해린계 법상종의 중심지였던 법천사 대중들이 황포를 부리자 그 곳의 주지를 역임하여 진정시켰다. 덕점은 그 공로로 승통이 되었으며, 의종초에는 현화사주지가 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덕점의 문도인 覺觀(1121- 1174)이 명종초까지 현화사승통을 역임하게 된다.⁸⁹⁾ 즉 이자겸난 이후 정현계통이 해린계통 보다 활발히 진출하게 된 것이다.⁹⁰⁾

85) 김두진, 앞의 글, pp. 121-122.

86) 푸지오니, 앞의 글, pp.92-93.

87) 최병현은 수주최씨가문도 법상종교단내에서 인주이씨세력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앞의 글, p.247).

88) 「원증승통 덕점비문」, pp. 309 - 310.

89) 이지관편, 「玄化寺 覺觀僧統墓地銘」, 『역대고승비문』 3, pp.370 -371.

정현계 법상종의 활동은 바로 진표계 법상종의 새로운 대두를 의미한다. 진표계 법상종이 대두된 사실은 김부식이 쓴 「俗離寺 占察會記」를⁹¹⁾ 통해서 알 수 있다. 속리사는 바로 청주김씨세력과 관련된 진표계 법상종사찰이다. 속리사 점찰회는 인종의 질병이 속종의 등극과 이자점란 때 죽어 생천하지 못한 혼백들이 이승에 넘나들어 생긴 것이라 하여 병을 치유하려고 점찰회를 연 것이다.⁹²⁾ 「속리사 점찰회기」에서는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소현의 활동과 함께 더 이상 부각되지 못하였던 진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것도 진표의 점찰법과 관련해서이다. 또한 속리사에서 인종의 질병치유를 기원하였다는 사실은 덕검과 왕과의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이후 무인정권기에 들어와서도 진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明宗初 劉羲가 쓴 「도솔원 점찰회소」에서는 진표의 신심을 언급하고 있다.⁹³⁾ 이규보 역시 「南行月日記」에서 진표의 행적과 점찰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⁹⁴⁾ 이것은 그만큼 진표의 점찰법이 당시에 널리 성행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무인정권기에도 진표계 법상종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때 주목되는 사실은 관동 풍악산의 鉢淵藪 石記라고 할 수 있다. 神宗代인 1199년에 세워진 이 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고려시대 진표계 법상종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상종의 기원이 진표에게 있음을 특기하고 있다.⁹⁵⁾ 그리고 그 법맥이 금산사가 아니라, 영심으로 그것도 속리사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는 명주지역에서의 진표계 법상종의 동향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덕검 이후 활동한 江陵金氏 출신인 義光(1107-1157)과 관련이 있다.⁹⁶⁾ 의광이 인종대 용두사주지를 역임하였다는 사실은 그 역시 속리사 계통인 진표계 법상종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발연수 석기의 건립은 무인정권기까지 활동한 진표계 법상종의 세력과 그 중심지가 진표의 법맥을 이은 영심이 만든 속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발연수 석기는 후삼국시대 진표계 법상종의 동향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정현 이후 무인정권기에 이르기까지의 진표계 법상종의 활동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90) 김남윤, 「고려전기의 법상종과 해린」, p.138.

91) 『동문선』 110.

92) 당시 점찰법에 대해서는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법상종」, pp.141-147 및 푸지오니, 「高麗後期 法相宗教團의 動態」, 『고려시대 법상종교단의 추이』 pp.139-144가 참고된다.

93) 『동문선』 110.

94) 『동국이상국집』 23.

95) 許興植, 「瑜伽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1986, pp.220-221.

96) 의광에 대해서는 푸지오니, 「문벌귀족의 대두와 법상종교단의 융성」, pp.116-117을 참고하라.

5. 맺음말

이상에서 신라말·고려전기 청주김씨의 사상적 동향을 법상종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간단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 하대 청주김씨는 진표계 법상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청주김씨가 진표계 법상종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진표의 법상종이 인접한 지역인 청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진표의 법맥을 이은 영심이 속리산에 사찰을 세우고, 그 곳에서 점찰법회를 처음으로 열었던 것이다.

청주김씨와 관련되며, 청주지방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는 법상종은 이 지역이 904년 이후 궁예의 세력기반이 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불교전반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미륵신앙의 동향에 잘 알고 있던 궁예는 청주지역의 법상종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견훤이 진표가 출가한 금산사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사실과 비교된다. 이제 옛 백제지역에서 출발한 진표계 법상종은 각각의 지지세력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궁예가 911년 이후 신정적 전제주의를 추구하면서 진표계 법상종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변화되었다. 그는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미륵종이라고 불려도 좋을 새로운 불교종파를 만들려고 하였다. 명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궁예의 새로운 미륵신앙은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궁예의 태도변화는 불교계의 커다란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청주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진표계 법상종의 반발이 구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석총의 죽음에 보이듯 궁예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 세력은 왕건의 지지세력이 되었으며, 이후 왕건의 집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려 전기 청주김씨는 정치적으로는 세력이 곧 약화되었지만, 사상적인 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김근겸가문에서 3대에 걸쳐서 법상종 승려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이때 청주김씨가문의 승려들은 모두 정현 계통의 승려였으며, 진표계 법상종을 이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정현 계통은 고려전기의 법상종에서 주류는 아니었다. 이와 달리 주류를 형성한 것은 해린 계통으로, 태현계 법상종이었다. 해린계 법상종은 인주이씨 등 문벌귀족과의 결합하면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광교원이나 선리궁의 설치를 통해서 기존의 법상종교단을 통합하려고 하는 등 당시의 법상종에 새로운 변화를 줄려고 하였다.

이에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된 정현계 법상종과 해린계 법상종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정현계 법상종의 반발은 덕검의 활동에서 살필 수 있다. 덕검은 인주이씨출신이 주도하는 해린계 법상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반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경주김씨와 같

은 새롭게 대두한 귀족가문이나, 화엄종 등 인주이씨계 중심의 불교계 통합에 반대하는 불교세력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이자겸란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정현계 법상종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이자겸난 이후 정현계통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정현계 법상종의 활동은 바로 진표계 법상종의 새로운 대두를 의미한다. 그동안 부각되지 못하였던 진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든지, 진표의 점찰법이 당시에 널리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무인정권기에도 진표계 법상종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무인정권기까지 활동한 진표계 법상종의 세력과 그 중심지가 청주김씨와 밀접한 속리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